

“몽골(蒙古)민족의 솔롱고스(고려)

국명에 대한 고찰

김 기 선

몽골(蒙古)민족은 고대로부터 우리 한민족을 중국과는 달리 고려(高麗) 한자음의 “가올리” “고올링” “고올리”가 아닌 “솔롱고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솔롱고스」란 국명(國名)은 오직 몽골민족만이 우리 한민족을 부르는 명칭이다. 역사적으로 두 민족은 가까운 이웃 민족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도 한계통을 이루는 민족으로서, 중세로 지금까지 우리민족을 다른 민족과는 달리 독특하게 불려온 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몽골어에 있어서 무지개란 의미의 솔롱고스(고려) 국명은 1990년 몽골이 독립하고,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전까지는 생소한 말이었으나 최근 한.몽 관계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진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어감(語感)을 느끼게 하는 어(語)이다.

몽골은 지난날 국내 국어관련 학자들의 일련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알타이학의 일부 몇 연구가들의 「솔롱고스」국명에대한 계통문제가 일부 논문에서 다루어진바 있다.일반적으로 「솔롱고스」에 대한 어원설은 대략 5~6가지 가설로 구분된다. 本 논고에서는 민족의 원류를 고찰해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위의 국명을 민간 어원설과 가설로 구분하고, 그 위에 필자의 개인 견해를 한 두 가지 소개하여 각 분야별로 그 어형(語形)의 형성

배경과 의미상의 변천, 변화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각 어원설을 크게 나누면 무지개와 관련된 가설(4), 민족과 관련된 가설(3)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각 어원 설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지개와 관련된 것으로 첫째는, 중세 XIII-XIV C의 고려(高麗)와 저들(원)과의 긴밀했던 관계, 즉 형제 국가로서의 경제, 문화 교류로 인한 양국의 활발한 접촉과 인적교류¹⁾에 의해 몽골에 정착했던 고려 후손들이 무지개가 떠오를 때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손들에게 부모의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무지개가 뜨는 남쪽 고향에서 왔다고 하는 의미에서 솔롱고스(무지개)라고 불렀다는 설이다.

두번째는 민간어원설로, XIII C 당시에 몽골군이 고려를 처음 압록강을 건너 침입할 때에 고려 민족의 색동옷, 한복 등의 색깔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여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설로 북한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어원 설이다.

셋째로 몽골 민족은 고대로부터 한민족을 백색(白色)의 민족으로 구분하여 해가 처음 떠오르는 동방의 나라- '빛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고요하고 무지개처럼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해왔던 전통에서 나왔다고 보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다.

넷째는 중국의 산둥반도 북쪽 천진만 위에 위치해 있는 봉래(蓬萊)현은 본래 당 현종까지 登州(등주)로 불리워지다가 폭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동방(지금의 한반도)으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숫자가 많아지자 그 이름을 등주(登州)에서 여기가 바로 이상향,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봉래(蓬萊)로

1) <고려사(高麗史)>. 충렬왕전 ~ 공민왕전

바뀌었다고 하는 구전 설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위의 이상향의 의미는 진시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불로초를 구하러 한반도로 간 남자들이 돌아 오지 않아 해변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한반도는 바로 ‘이상향’의 의미로서 ‘무지개의 나라’- 솔롱고스라고 불렸다는 설이다.

다음으로는 민족(民族)과 관련된 가설들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몽골 고비지역에는 「설령거」라고 하는 담비(족제비과)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백두산에 이 담비(설령거)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하여 고려를 지칭 할 때 설령거(담비)가 많은 나라의 개념위에 복수어미-s를 붙여 솔롱고스라고 불렸다는 설이다.

두 번째로는 최학근교수의 고대 삼국시대의 「신라」 국명과 솔롱고스의 어원관계를 추적한 견해이다. 즉, 당시 삼국의 쇠붙이(금, 은, 청동, 철기)에 대한 개념과 수도(서라벌)의 상관 관계가 고대의 국명들과 관련 있다고 보는 “신라”- “솔롱고스”- “쇠(蒙古語-Shar)”- “서라벌(수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고대 국가들의 국가 명칭 부여체계와 관련된 설이다

셋째로 中國 내몽골의 오르도스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설령(Solon)족과의 관계이다. 이 설령족은 한반도와 가장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퉁구스족의 한 지파로서 역사적으로 지리, 언어적으로 고려와 가장 가까운 계통의 민족으로 “설령”- “솔롱고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가설이다.

위에 소개한 각 설들을 시기적으로 구분, 민족별로 의미상에 있어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는지를 고찰해 보기에 앞서, 「몽골의 Solongos」가 고대로부터 어떤 의미로 사용어 왔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몽골어에서 무지개를 뜻하는 어휘로는 solgu와 여기서 파생된 solu(뛰어난,

독특한),와 solung γ -a(무지개)가 있다. 즉, 여기에서 몽골어에는 무지개를 뜻하는 어휘로 solgu, solung γ -a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lung γ -a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무지개의 의미로 중세의 고려(高麗)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둘째는 일명 시베리아 담비를 일컫는 말로 족제비과의 일종이다. 그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며 주로 몽골 남부의 고비사막에 서식하고 있다. 셋째 의미는 머리의 깃이 빨갛고 몸 전체는 녹색이며 몸이 길어 매우 아름다운 황새과의 새를 말한다. solgu는 solung γ -a의 약어로 쓰였던 형태로 滿洲인들이 한민족을 -solgu, -solxu로 불렀던 것과 그 형태. 의미가 일치한다. 몽골어의 solgu는 무지개의 뜻 이외에도 다른 어휘들과 합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olgu γ ua ‘황녹색 참외의 일종’, solgu bin ‘밀가루에 꿀을 섞어 기름에 튀긴 과자’, solgu bilu γ -A ‘케익의 일종’, solgu ca γ as ‘고려에서 만든 돈’ 등의 복합어가 있다. solgu는 또한 속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말싸움과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후에 한민족을 지칭하는 solung γ -d-s로 된 것은 solung γ -a에 복수어미 S가 붙어 무지개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몽골 학자들의 어휘계통론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위에 언급한 각 어원설을 고대 중앙아시아의 관련 주변 국가들의 국명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관계에 따른 몽골민족의 고려, 고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설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는, 13~14C에 몽골과 고려의 역사적 관계가 아주 밀착되면서 당시 몽골로 이주하여 정착했던 고려유민의 자손(후손)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의 고향

을 가르키는 말로 무지개가 뜨는 남쪽에서 왔다고 하는 설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몽골민족은 우리 한민족을 고대로부터 몇 가지 형태로 불러왔던 전통이 있다. 그 첫째는 「고려」를 가르키는 말로 한자음을 그대로 전사한 「고올리」, 「가올리」, 「고올링」이 전해 내려오고, 다른 형태로는 바로 “무지개”를 뜻하는 「솔롱고스」라는 이름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지금의 동몽골의 많은 지역에서는 「솔롱고스」라는 국명을 1921년 혁명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고 “고올링 울스 (고려나라)”라는 이름만 불러왔었던 것이 최근의 몽골학 학자들의 답사에 의해 밝혀졌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몽골은 서몽골, 중부몽골과는 달리 XIII-XIVC에 고려와 저들과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였던 역사적 관계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1992년 동몽골 대탐사에서 발견된 고올리 성읍터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브이르 호수 언저리의 고올리 성읍터, 스흐바타르 아이막(지방) 다리강가섬(군)의 솜팅토이르 고올리 성읍터, 그리고 셀렝게 아이막의 오르홍 섬(군)의 고올리 성읍지 종이 공방터에서 고구려 무덤과 고분 그리고 도깨비 무늬 솜막새 기와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려로부터 많은 수의 유민이 원 나라에 정착해 살았던 흔적으로 충렬왕에서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원(元) 정부로부터 고려 왕실에 여섯 공주가 황후가 되었던 것과, 역으로 고려에서는 공주와 시녀, 상인들의 원으로의 행렬이 활발했었던 사실을 볼 때 동몽골에서는 「솔롱고스」가 아닌 「고올리」가 대체적으로 강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다만 「솔롱고스」란 이름을 전 몽골 소수민족 사이에서가 아닌 고올리 성읍터에 살던 고려 민족의 후손들 사이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저 남쪽 고향을 뜻하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의 유적, 유습에 관한 이야기들과, 한국의 장례식에서의 한가지 전통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동몽골 국경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올리국 유적, 유습에 관한 이야기는 첫째 그곳의 인사의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곳의 몽골 부녀자들은 화장실²⁾(몽골에서는 ‘말 보러 간다’라고 말한다.)에 가면서 고올리 부녀자들과 서로 마주치면 몽골 부녀자들은 서남쪽에서 왼손을 들어 북동쪽을 향해 한 번 돌려 인사 했었다고 한다. 이 인사의례는 본래 한 종족이었던 몽골사람들과 고올리 사람이 민족이동으로 나뉘지게 되자 한 동기간임을 일깨우는 인사였다고 한다. 이 유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전통 장례식 운구 행렬에 「북망향(北忘向)」을 되풀이 하는 의식은 우리 민족의 本郷을 되새기는 것으로 위의 동몽골 지역 즉,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이 우리 민족의 원류임을 자못 더욱 확실히 밝혀주는 유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지역과 관련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는 동몽골 더르너트 아이막(지금의 내몽골과 인접한 동몽골 지역)의 할헝골(강)의 할헝골 솜(郡)의 한 지류에³⁾ 커다란 비석 문이 세워져 있었다고 이곳 촌노(村老)들은 전한다. 이곳 촌노들에 의하면 이 비석문은 古代上古 한자음으로 위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 내용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지역(할헝골)에 몽골민족과 솔롱고스 민족이 함께 이웃해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석문은 제2차 대전 당시 1936년 2월부터 약3년간 일본 동북아 군대가 이 곳을 점령 주둔하면서 1936년 2월 25일 이 비석 문을 차로

2) 몽골의 “말 보러 가다”라는 표현은 우리 중세(15C)국어 자료에 대부분 이와 동일하게 「大小 말 보러 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중세에 원으로부터 차용된 완곡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고려와 저들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

3) 압록강을 몽골에서는 ünegen γol(여우강)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위의 할헝골 강의 한 지류의 이름 역시 ünegen γol(여우강)로 부른다고 한다.

실어 일본으로 운송해 갔다고 그들은 전하고있다. 위의 비석문이 갖는 의미는 두 민족의 원류(源流)와, 비석문에 과연 우리 한민족을 「고려」로 표기했는지 또는 「솔롱고스」로 기록했는지, 자못 언제가는 일본으로 운송해간 그 비석문을 찾아내어 밝혀야 될 흥미로운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

무지개와 관련된 두 번째 가설로는 XIII C 몽골 족의 고려에 대한 7차 침입에 따른 당시의 고려민족의 의상의 색깔이 무지개처럼 화려한데서 솔롱고스(무지개 옷을 입은 나라)민족이라 칭했다는 설은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 날 북한 학자들이 분단 이후 북한에 전해져 내려오던 민간어원설을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던 몽골과 가까이 하면서 몽골학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의상의 색깔과 관련된 이 민간어원설을 몽골 족의 고려 침입당시 고려 민족의 한복, 색동옷, 때때옷 등을 보고 당시의 몽골 민족들이 역시 비단으로 수놓은 화려한 소수민족들의 의상보다 훨씬 화려함에 놀라움을 표시했던 것은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황금사(黃金史)⁴⁾에는 13C 당시에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진 고려를 방문하고자 했던 칭기스칸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칭기스칸의 4번째 부인은 고려 여인이었으며 이름은 「홀룽」이었다. 칭기스칸은 다른 부인들보다 특히 이 고려여인을 사랑하였는데, 이 고려여인을 데리고 고려를 방문하고자 하였다. 몽골 본토에서 고려를 향하던 중 지금의 압록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던 잘라이르 아이막(都에 해당)이르자 그 지방에 홍수가 일어 약 2개월간 압록강이 범람하자 칭기스칸 일행은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이 때 몽골 본토 정부에서는 칭기스칸이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통치의 공백이 생기자 여러 사신을 파견하여 칭기스칸의 마음을 돌려,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

4) 몽골황금사(Altan tobči) 732절.

시도되었다. 결국 마지막 방책으로 칭기스칸이 가장 아끼던 아리그승이라고 하는 마두금(馬頭琴) 악사(樂士)를 압록강으로 보내 회심(回心)시키는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기록에서 한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려여인에 대한 칭기스칸의 남다른 사랑과, 침략차원에서가 아닌 순수한 마음의 발로에서 고려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건이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몽골민족의 원류와 관련된, 그리고 몽골인들에 알려졌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고려의 이미지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고려인들의 민속적 의상에 평소 매료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되어 그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는 빛과 관련된 설이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이웃 주변 민족으로부터 ‘백의 민족’, ‘해가 처음 떠오르는 나라’, ‘빛의 나라’라고 하는 동방의 국가로 인식 불리워져 온 전통이 있다. 몽골 민족 역시 주변 국가들을 색으로 구분하여 지칭한 전통이 여러 기록에 엿보인다. 그 일례로 13C중앙아시아의 역사를 계속이어 18C에 완성시킨 蒙古情史에 몽골 민족을 푸른 이리, 푸른 하늘에서 기원했다고 하여 청몽골이라 부르고, 고려 민족은 백색, 중국은 적색으로 구분하여 불렀다.⁵⁾ 백색 고려민족과 관련하여 몽골 고대 史書의 여러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몽골의 고대 조상들은 칭기스칸 대제국 이전 고대 한국의 삼한, 삼국시대의 여러 국가들과 관계해 왔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고대로부터 몽골은 한민족의 기원, 원류, 신화와 관련된 여러 사서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자료들로부터 몽골 역사가들이 한민족에 대하여 서술한 기록들은 그리 적지 않다. 18C <<황금사>>의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5) 蒙古清史제 1권 4부 36쪽.

<칭기스칸이 31세(A.D 1193) 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의 설령가(solonkha)족들의 보하,(buqa)차강(caran), 하강(qaran) OTOG⁶⁾중 보하, 설령가 두 OTOG에 방문하여...>(732절)라는 내용에서 몇가지 민족명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동시대에 쓰여진 <<몽골 원류>>에 <솔롱고스의 차강, 하강에서의 솔롱고스 점술사들의 사슴, 물...>의 기록에서 상세히 보면 보하, 차강, 하강의 세 이름은 고대 솔롱고스 민족의 세 조상의 이름을 몽골화하여 부른 것으로, 특히 점술사들을 솔롱고스와 관련시킨 대목은 민족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어떤 큰 의미를 내포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사서에 솔롱고스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 <차강國 3부족 연맹-솔롱고스>라고 기록한 것은 몽골민족이 고려를 솔롱고스 민족으로 명명한 것 이전에 「차강」국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3부족 연맹이라고 하는 씨족, 부족의 독립개념으로 분리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本솔롱고스라고 하는 민족명의 어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몽골 민족은 어느시기에 이들 세 솔롱고스 민족을 「차강」국이라 명명했으며 「차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몽골어에서 “차강”은 흰색을 의미한다. 위의 보하, 차강, 하강이라고 하는 세 민족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13C당시 시베리아 남부 셀렝게 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었던 유명한 세 점술사들의 하나인 “오아스 메르게뜨”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색(色)과 관련된 민족 구분에 따른 本연구의 핵심사항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면으로 시베리아 바이칼호의 커리 브리야트 「몽골」족과 「고구려」 또는 「고려」의 고대 국명을 복원 재구해보고자 러시아의 L.R. Koncevic , R.J.

6) OTOG - 중세 몽골민족의 정치적으로 분류한 지역 행정 단위의 하나

Sjarilga, Sinova등 여러 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몽골 커리족과 고려 민족의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비교 연구해온바 그동안 체질 인류학, 문화 인류학등 여러 분야에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위의 연구 자료들과 고대 중국, 몽골사서들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솔롱고스와 일반적으로 고구려 민족의 선조와 관련 있다고 보는 부여, 그리고 몽골 황금사에 나오는 세 부족(보하, 차강, 하강)중의 하나인 보하의 상호 관련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몽골 학자들이 「보하」족이 부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부여의 여(yo)가 몽골어 -j-y-γ가 상호 전운(轉韻)되고, γ는 x,kh로 전운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부여와 보하의 상호의 미에 있어서도 부여 민족을 샤머니즘적 전통에 따른 사슴과 관련시켜 본 것에서 볼 때, 몽골어에서의 사슴(buγa)이 황금사에는 buqa로 한민족에게는 부여로 상호 전운되어 정착된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어휘라 생각해 볼 수 있다. 3민족중 「차강」족은 황금사에서 솔롱고스 민족의 한 부족으로 보하와는 달리 색으로 구분했던 몽골 민족의 전통에서 볼 때, 몽골 민족이 자신들을 “하늘의 푸른 빛에서 탄생한 사람들”의 의미로-푸른 몽골 민족이라 지칭하고 있는것처럼 그들이 고려를 솔롱고스라고 명명하데도 그들의 빛의 신화와 관련시켜 백색민족으로 분류한 어떠한 연계성이 엿보인다. 그것의 언어학적 증거가 바로 바이칼호 주변의 커리 몽골족의 čaran tolon(빛, 여명)의 첩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터키, 몽골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s-t-č의 전운(轉韻)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몽골어에는 “caγan”, “tolon,solon”이 “빛 환”색의 의미로 그 계통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되었었던 흔적이 커리 몽골족어에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는 단군신화와 비추어서 볼 때, 그 민족의 샤머니즘적 전통에 따른 민족의 계통을 소급 추적해 보는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접근 해 볼 수 있는 한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넷째로는 이상향(무릉도원)의 의미로서의 구전설화이다.

중국 산둥반도(천진만)에 위치해 있는 봉래(蓬萊)현에는 옛부터 고려와 연관된 구전설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곳에는 옛부터 한반도가 한(漢)족 또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상향의 나라”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그 이유의 두가지 근거를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한반도에는 고대로부터 신비스런 약초가 있다고 알려져 진시황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불로초를 구하고자 제주도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전설이 봉래현과 제주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당(唐) 현종시대에는 현종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봉래에 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배를 타고 한반도로 떠나자 당 현종이 이를 보다 못해 한반도가 이상향이 아니고 바로 여기가 이상향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등주(登州)라는 이름에서 봉래(蓬萊)로 바꿨다고 하는 전설이 지금까지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당현종시대 이전부터 이 봉래에 살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는 등주로부터 한반도까지 구름다리를 놓아 이상향의 나라에 구경가자고 하는 말이 민간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위의 두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가 주변 국가에 얼마나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지를 가늠케 해주는 말이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이상향의 의미를 나타내는-봉래와 연관시켜서 볼 때 그 흔적을 엿볼수 있는 어휘의 발자취를 바로 금강산의 4계절 명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금강산의 이름은 옛부터 봉래산, 풍악산, 개골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 중 여름을 말하는 봉래산의 출처이다. 계절별로 그 이름을 달리 불렀던 금강산

의 여러 이름들 중 봉래산은 다른 이름들과는 달리 중국에서 붙인 세계3神山 중의 하나이다. 산의 형세와 기암절벽등 그 경치가 뛰어나다 하여 중국시인들이 고대로부터 금강산의 비경에 감탄하여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세계 3神山중의 하나로 선택, 봉래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금강산은 본래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의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백두산을 父山, 금강산을 母山, 한라산은 子山으로 분류 백두산과 함께 정신적인 지주 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에서 한반도는 아마도 옛부터 주변 민족들의 ‘마음의 이상향’ - 무릉도원으로서의 자연이 인식이 수 천년간 이어져 왔던 한 전통이 위의 봉래라는 지명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은 무지개와 관련된 가설들을 여러시각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민족(民族)과 관련된 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솔롱고(solung γ-a)라고 불리는 족제비과의 담비가 몽골에는 고비사막에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 족제비과의 담비는 시베리아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시베리아 일부지역의 소수 민족들은 솔롱고-담비가 그 생김새나 털이 매우 부드러워, 좋아하고 아끼는 동물의 하나로 옛부터 백두산에 담비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데서 solung γ-a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의미로 복수어미 -S를 붙여 solung γ-as 민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이 족제비과의 담비는 백두산에만 많이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전지역에 걸쳐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제기되면서 이설은 그 가능성에 있어 매우 신빙성이 적다 하겠다.

두 번째는 최학근교수(1991.52-58)의 신라의 국명과 관련하여 본 견해이다. 즉 신라국호와 솔롱고스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데 있어서 신당서와 삼국사(三國史)에 나오는 金成⁷⁾(신라국호의 漢字역)과 일본사서등의 「Siroki, Siragi」

-두 명칭이 현재국어의 쇠부치(금, 은, 철을 포함한 의미)를 고대의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존중하여 국명과 인명에 접속 시키는 풍습에 따라 만주 통구스와 몽골족이 고려 민족을 solongγos, solgo로 국호를 불렀다는 견해이다.

위의 국명과 인명에 쇠부치를 접속시킨 풍습과 관련하여 본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설로서 실제로 몽골의 국명과 인명에 쇠부치와 관련된 여러 어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몽골어의 selem(긴칼)의 -se, hutga(短刀)의 hu, tomor(쇠)의 -to 그리고 인명에 접속된 Cinggis qan(Kan)의 -ci, Temujin(테무진)의 -te⁸⁾가 모두 국어의 「쇠」를 뜻하는 의미들이다. 또한 「쇠」와 관련해서 최학근 교수의 신라의 경성(京城)- 徐羅伐, 부여의 수도, 所夫理, 고려의 「京字訓」으로 -徐伐을 사용했던 것, 李朝의 서블, 그리고 시골의 중세 국어음 「스ᄃᆞᆫ」⁹⁾의 표기 모두가 위의 국명, 인명과 접속시킨 풍습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주.통구스어에는 「쇠」를 -sala, 또는 -hal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몽골어에서는 -se, -ci, -te, hu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국어의 시골과 같은 의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몽골어의 suma(n)의 어두 형태소 -su가 국어의 「시」와 음운대응이 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알타이어족 중에서 특히 북방민족이었던 몽골과 만주, 통구스족이 다함께 「鐵」을 존중하고 국명, 인명에 「철」을 의미하는 語를 접속 시키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이들 민족의 조상과 후대 민족에서 그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淸太祖 「愛新覺羅」(aisin gγoro)氏는 본래 「金」氏인데 「aisin

7)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一卷三十四 地理一

8) 몽골어에서의 h- g- s, t-s의 상호 전운(轉韻)은 터키, 몽골어에서의 공통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예: 여러사서에 훈노족명을 hunnu, gunnu, shunnu등으로 기록한 것에서 그예를 찾아볼 수 있다.

9) (鄉兵) 龍歌 35章

」은 만주어로 「金」을 의미하며 「gjoro」는 국어의 겨례와 그 뜻과 음이 일치하고 몽골족의 조상으로 보는 「遼」거란족 역시 「鐵」를 국호를 삼았던 기록이 보인다. (遼以賓鐵爲號)¹⁰⁾ 특히 만주어의 gjoro는 몽골어의-güür (민족, 겨례)와도 그 의미와 음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어원적으로 고려, 몽골, 만주-통구스와 횡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라 할 수 있다.

위의 사실들로 볼 때에 국명, 지명, 인명이나 어원적으로 신라, 고려, 만주, 통구스, 몽골의 관계는 신라외에는 모두 북방민족으로서 비슷한 맥락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살펴 느껴 볼 수 있다. 신라의 국호(國號) 역시 어원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신라」의 음과 「쇠」를 뜻하는 몽골어의 -se, 그리고 만주, 통구스어의 sala와의 음운학적 문제이다. 몽골어에서는 금을 shar alt라고하며 여기서의 -shar는 노랑색을 뜻하는 형용사이다. 결론적으로 고대의 「쇠」와 관련된 국명, 지명, 인명의 전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몽골어의-shar와 신라와의 음운적 대응관계, 그 위에 「쇠」를 뜻하는 만주어의 sala와 고려를 지칭했던 solgo 그리고 solonγos와의 이 모든 관계가 그 뜻과 음에 있어서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는 점에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과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 가설은 한국과 몽골의 일부 사학자들이 사담(私談)에서 구두로 제기한 것으로 내몽골의 solon(통구스)족과 신라, 솔롱고스의 국명의 연관성이다. 즉 위의 세민족이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10) 金史本紀

「신라」 국호는 본래 지증왕 4년(503)에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¹¹⁾ 「신라」의 명칭은 「신라」로 확정 되기전 여러 형태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서」 신라전에 보면 송나라에서는 신라와 사라를 혼용해서 썼던 기록이 보이고¹²⁾ 1989년 4월 경북 영일군에서 발견된 古碑에도 신라 명칭이 斯羅¹³⁾로 나타난다. 또한 신라 김씨 시조 김알지에 관한 백계(白鷄)설화와 비슷한 전설이 일본에도 전해오는데¹⁴⁾ 이즈모의 미오세키정(美保關町)과 에치젠. 쓰르가의 신사에서는 신라를 고대로부터 「시라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 신라의 명칭은 대략 사라, 사로, 시라기, 신라의 4가지 형태가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국명과 관련성이 제기된 내몽골의 설령족은 본래 1732년 청나라 건륭제에 의해 러시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바이칼호 동쪽에 살고 있던 설령, 바르코진족을 흑룡강 중류지역으로 이주 시켰다가 후에 다시 지금의 땅으로 이주 정착시켜 살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설령족의 조상은 B.C 2000년부터 바이칼호, 흑룡강 이북, 셀렝게 강, 오는강, 실레강, 레나강 지역에서 백화수피(白桦樹皮)로 만든 仙人柱라고 하는 텐트에 거주하며 사냥을 즐겨했었던 민족이다. 중국 《新云策》에는 “密林居民以鹿牽車”(큰 산과 밀림에 거주하며 순록을 이용하는 민족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알타이제어의 제 3지파- 통구스어에 속하는 이들 설령족은 본래 文字가 없고 20C 들어서 바이칼호에서 남하한 이들 민족들은 설령, 통구스, 야쿠트족으로 불리다가 1958년 8월 1일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鄂溫克(에웡키)족으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설령족이 자리잡고 있었던 바이칼 동쪽의 땅은 본래 고대에 흉노족 이후 거란과 실위의 주요 무대였던 것을 볼 때에

11) 삼국사기 4. 신라본14. 지증왕조

12) 宋時日 新羅 或曰斯羅

13) 경북 영일군 냉수리 신라비, I행

14) 코오베시 카라토에는 황금으로 만든 닭을 넣은 카라비즈(한케)가 묻혀 있다고 한다.

실위와 설령족의 관계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아울러 또 한가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려와 바이칼 동쪽에 살고 있는 커리(Khori)민족과 야쿠트에 살고 있는 hori, 하바로보스크의 소수민족인 hori족과의 상호 관계이다. 바이칼호의 커리민족은 한국어와 민족의 원류연구에 있어 그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야쿠트의 hori족은 우리에게 생소한 민족이다. 필자가 특히 적지 않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민족에 옛부터 고려민족과 관련된 구전설화가 상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고구려나 부여보다도 건국지가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베리아 동북부쪽에 위치한 이 지방에 고려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부분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야쿠트 서북부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hori족은 언어와 문화가 야쿠트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고대에 따뜻한 남쪽에서 세 강을 건너 지금의 이 지방으로 이주해 왔다는 내용이다.¹⁵⁾ 본래 문화 인류학적으로 민족의 이동은 따뜻한 곳을 찾아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민족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이 민간설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따뜻한 곳이라 함은 하바로보스크도 추운지역에 해당되므로 우리 한반도의 고구려(고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부 러시아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위의 지역에서 1920년에 두 무덤이 발견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무덤에서 발견된 2벌의 의복이 그들의 전통의상과는 다른 우리 중세의 궁중 예복(15C-17C)과 비슷하다는 점에 있다. 그들의 언어는 지금 거의 잊혀졌지만 야쿠트(통구스제어의 일파)어와는 전혀 다르며 國鳥 또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볼 때에 역사적으로 실위, 설령족과의

15) Б.Р. ЗОРИКТУЕВ, ПРИБАЙКАЛЬЕ 1994.

관계, 지리적으로는 바이칼호에서 이주해 올 당시 여러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설령족들 중 selenge 강 유역에 살았던 설령족과 셀렝게 강, 그리고 솔롱고스 국명과의 관계, 또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해 갔다고 하는 동일 설령족의 하나인 야쿠트내의 허리 민족과 설령족과의 관계, 이에 따른 설령족과 신라, 솔롱고스의 관계를 각 분야별로 총체적으로 재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상으로 solonγos(고려) 국명과 관련된 여러 관련 기원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요약해보건데, 예로부터 몽골은 우리 한민족을 위에 열거한 solungγ-as, solgo, solho 이외에도 고려를 지역별로 달리 solonγ-a, solonγod, solonγos 의 세가지로 기록(蒙古靑史,732)한 것은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끄는語들이라 하겠다. 본래 몽골의 무지개를 뜻하는 solonγo는 그 조어법에있어 olan(많은),sngs(색)의 두음이 이웃하여 발음되는 과정에서 합성되어 “무지개”라는 복합어가 된 것으로 고대의 형태를 재구해보면 *xolan xāngs) xolanγa) xolonγo) solonγo 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두음 solon은 그 계통에 있어 몽골어의 cal(흰), tolo(브리야트 蒙古語 -여명,빛)과 한 계통을 이루는 것으로 의미상에 있어 “흰, 빛”이라고 하는 한 의미로 집적되는 것을 살펴 느낄수 있다.

그것은 위의 몽골청사에서 구분한 세 solonγos민족의 고려를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부른 것에서도 그 특성이 드러난다. 먼저 solonγ-a는 동몽골의 브이르 호수에서 할헝골(강)을 거쳐 만주에 몽골족과 이웃하여 살고 있던 jaruud jalair(압록강 이북 지역)지방의 고려人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며, solonγod는 요동반도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에 여진족과 이웃하여 살았

던 고려人을 불렀던 語이고 후에 이것을 만주人들이 약어로 solho라고 고려人을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solonγos는 지금의 한반도에 살고 있던 本土고려人을 지칭했던 것임을 위의 기록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색”, “빛”과 관련시켜 고려를 지역별로 달리 분류한 것은 그 민족의 민족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가설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함은 solonγos의 의미에 따른 “색깔”과 “빛”, 그리고 지역과 민족별로 구분하여 고려민족을 지칭했던 것은 앞으로 두민족의 계통을 공동으로 연구 고찰하는데 있어서 학문적 근간을 형성하는, 또한 중앙아시아의 이들 몽골-한민족의 언어의 기원과 문화 전통의 연구에 있어 민족지(Ethnography)적으로 보다 중요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석빈 , 신라어 고유명사의 일고찰 .중앙대.1982
2. 김달수, 일본 속의 한국문화 유적을 찾아서 . 대원사.1995
3. 김방한 외,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1986
4. 이범선, 한국고대 국명 지명연구. 형설출판사.1982
5. 최학근, 국어방언 연구, 명문당.1991
6. 양억관 , 몽골의 초원. 고려원.1993
7. 김형수, 몽골어. 만주어비교 어휘사전. 형설출판사.1994
8. 한국민족학연구, no.3단국대 한민족 연구소.1996\
9. 고구려 문화, 사회과학 출판사.1975
10. 고구려 연구, 사회과학출판사.1976
11. 고려사(北譯 高麗史).신서원.1992
12. 몽고문화사 D.마이달/N.츄르템. 동문선.1996
13. 몽골비사(蒙古秘史)
14. 몽골청사(蒙古靑史)xokh sudar
15. 몽골학(보고서), 6집 1997, 두솔.
16. 本田實信,蒙古時代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1991
17. 鄂溫克卷,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3
18. 長白山志 王秀平.吉林文史出版社
19. Б.Р. ЗОРКИТУЕВ. ПРИБАЙКАЛЬЕ 1994.
20. altan tobci(蒙古黃金史)
21. Aalto,P. 1976-77,"G.J. Ramstedts ongor-solonisches worterverzeichnis"

22. ERDENIN-TOBCI, Sagan secen. The Austrian National University.1991